

문학 프린트 1페이지 표

의인법	'눈'을 사랑을 이루려는 사람처럼 표현. 도전하고, 두드리고, 춤추고, 마음을 다 퍼부어주는 존재로 표현.
설의법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에서 눈의 끊임없는 노력을 강조.
반복법	'싸그락 싸그락', '난분분 난분분',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시어와 시구 반복, 운율 형성.
음성상징어	'싸그락 싸그락'이라는 음성상징어를 통해 눈이 내려 쌓이는 소리를 표현.
직유법	'햇솨 같은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과 햇솨같이 폭신하고 하얀 눈의 느낌을 형상화.
은유법	- 눈꽃(원관념)을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보조관념)로 표현. - 꽃(새싹)(원관념)을 '아름다운 상처'(보조관념)로 표현.
역설법	'아름다운 상처'(청사랑의 아픔 뒤 정신적 성숙과 성숙한 사랑을 표현)

1. 문학의 가치

(1) 문학의 미적 가치

■ 「첫사랑」 학습 자료

(1) 핵심정리

- ① 갈래: 자유시, 서정시
- ② 성격: 서정적, 회화적, 역설적
- ③ 제재: 눈
- ④ 주제: 인내와 헌신으로 피워 낸 아름다운 사랑
- ⑤ 특징:
 -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연현상의 모습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함.
 -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 형성함.
 -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을 형상화함.
 -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2) 표현 기법

의인법	'눈'을 사랑을 이루어는 사람처럼 표현 도전하고, 두드리고, 흔들고, 마음을 다 허부어주는 존재로 표현
살의법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라'에서 눈의 끊임없는 노력을 강조
반복법	'비그락 비그락', '난분분 난분분', '피고러지고 미고러져갈' 시어와 시구 반복, 운율 형성
운성 상징어	'비그락 비그락'이라는 운성 상징어를 통해 눈이 내려 떨어지는 소리를 표현
적유법	'햇살 같은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과 햇살같이 밝고 환한 눈의 느낌을 함축화
은유법	눈꽃(원관념)을 '바람 한 자락 불면 꼭 날아갈 사랑', '마침내 피워낸 것' 등을 '보조관념' 물(세력)(원관념)을 '마침내 피워 낸 것' 등을 '보조관념'으로 표현
역설법	'아름다운 상처(첫사랑의 아픔)를 정신적 성숙과 성숙한 사랑을 표현

(3) 해제

이 작품은 한겨울에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는 풍경을 소재로 아름다운 눈꽃을 피워내듯, 시련과 고난 그리고 헌신으로 피워낸 아름다운 첫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연의 순환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한겨울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고, 그 나뭇가지에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피는 자연 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모두 4연으로 된 시는 구성으로 볼 때, 1연에서는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도전, 2연에서는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시련, 3연에서는 마침내 피워 낸 눈꽃에 대한 예찬, 마지막 4연에서는 눈꽃이 진 후 봄에 피어난 꽃의 아름다움을 각기 노래하고 있다. 또한 '짜그락 짜그락', '난분분 난분분' 등의 의성어와 의태어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남몰래 자신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눈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의인법, 살의법, 반복법,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4) 다른 작품 들여다 보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샴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 이형기, 「낙화」

주제: 이별의 아픔을 극복한 성숙한 삶의 추구

해제

이 시는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이별을 꽃이 떨어지는 상황에 비유함으로써 이별을 끝이 아닌 성숙을 위한 과정으로 파악하여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낙화'가 꽃의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녹음으로 이어져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이듯이 인간사에서 겪게 되는 이별 역시 자아의 내적 성숙을 가져오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고통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긴 안목으로 '낙화'를 바라보면 이제 더 이상 '낙화'가 아픔이나 슬픔으로만 느껴지지 않고,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떨어지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현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1연에서 가야할 때를 알고 가는 이의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2연에서 '낙화'의 의미를 드러낸 후, 이를 자신의 이별과 관련지 으면서 이별이 비록 슬프지만 영혼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됨을 말하고 있다.

낙화에 사용된 표현법

표현 방법	시구
의인법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섬세한 손길 흔들며
은유법	인간사 = 자연현상(녹음, 열매, 낙화)
살의법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적유법	샴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역설법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속이 검게 타버린 고목이지만
창녕 덕산리 느티나무는 울봄도 있을 내었다

잔가지 끝으로 하늘을 밀어올리며 그는
한 그루 용수(榕樹)처럼
제 아궁이에서 자꾸만 잎사귀를 꺼낸다
번개가 가슴을 찢개고 지나간 흔적을 안고도
저렇게 눈부신 잎을 피워내다니,
시커먼 아궁이 하나 들여놓고
그는 오래오래 제 살을 달여 내놓는다
낮의 새와 밤의 새가 다녀가고
다람쥐 일가가 세들어 사는,
구름 몇 점 별 몇 개 뛰어들기도 하는,
바람도 가만히 숨을 모으는 그 검은 아궁이에는
모든 빛이 모여 불타고 모든 빛이 나온다
까마귀 깃들었다 날아간 자리에
검은 울음 몇 가지가 뻗어 있기도 한다

발이 묶인 채 날아오르는 새처럼
덕산리 느티나무는 푸른 날개를 막막 퍼들고 있다

- 나희덕, 「성(聖) 느티나무」

주제 : 나무의 성스러운 생명력

해제

이 시는 나무의 성스러운 생명력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 속 나무는 번개를 맞아 속이 거의 다 타 버렸다. 이러한 상태라면 나무는 거의 죽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 속 나무는 매해 푸른 잎을 피워 낸다. 시인은 그러한 겉에 탄 모습에서 검은 아궁이를 떠올리고 또 새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나무의 생명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아궁이는 불을 피워 내고 스스로 태움으로써 온기를 품어 낸다. 그 온기는 생명의 따스함을 의미한다. '모든 빛이 모여 불타고 모든 빛이 나온다.'라는 아궁이의 이런 속성을 형상화한 구절이라 할 수 있다. 속이 타 버린 나무이지만 아궁이처럼 생명의 따스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무는 때가 되면 잎을 피워 자신의 생명력을 드러낸다. 시인은 이러한 나무의 생명력을 마지막에서 '푸른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새에 비유함으로써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징

의인화 기법으로 대상을 예찬함.

나무의 성스러운 생명력을 형상화함.

색채를 대비시켜 선명한 감각을 불러일으키고 주제를 강화함.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 나무의 생명력을 구체화함.

가을날
빈손에 받아 든 작은 꽃씨 한 알!
그 술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
오직 한 알의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

빛나는 여름의 오후,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며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머물어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비에의 껌질을 모아 불태워 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 가는 가을날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머물어 가는 빛나는 외로움!

오늘은 한 알의 꽃씨를 골라
기인 기다림의 창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 문병란, 「꽃씨」

주제: 꽃씨를 통해 본 내적 성숙세의 영원과 지향
해제

이 시는 가을을 맞아 '꽃씨'를 받아 든 화자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내면적인 성숙을 다짐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여름이 화려하게 빛나는 찬란한 계절이라면, 가을은 외롭고 쓸쓸하면서도 무언가 머물어 가는 것을 느끼며 지난 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절이다. 이러한 가을의 이미지가 '꽃씨'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즉 여름에 이어진 가을이라는 계절이 인간 성숙의 흐름과 겹쳐지며, '꽃씨'는 가을이라는 계절의 묘사와 화자의 고백을 통해 인간 내면이 머물어 가는 성숙함을 드러내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

- 시각적 이미지, 공감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등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표현함
- 역설법을 사용하며 시적 의미를 강조함
- 의인법, 은유법 등 비유법을 통해 시적 대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함
- '성숙'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하나의 무게(물체)로 만져지는' 촉각적 이미지로 구체화함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햇빛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별받는 자세로 서서
아 별받은 몸으로, 별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짝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주제: 시련과 고통의 계절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는 나무의 생명력에 대한 감탄

해제

이 시는 겨울 나무가 스스로의 결연한 희생과 의지로 봄 나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여러 가지 대립적 심상을 바탕으로 형상화한 시이다. 시인은 겨울의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나무를 통해, 1980년대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할 시대적 소명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징

- 대립적 시어들의 사용
- 나무의 의인화로 삶의 태도를 유추해냄
- 역동적 이미지의 사용
- 상승 이미지의 사용

1. 문학의 가치

(2)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가치

(1) 핵심정리

- ① 갈래: 한시
- ② 성격: 사실적/묘사적/예찬적
- ③ 주제: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을 통해 얻은 삶의 깨달음
- ④ 정서: 농민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예찬, 벼슬에 얽매었던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 ⑤ 표현:
 - 농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시어 사용
 -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노동 현장을 생동감 있게 묘사
 - 대조적 소재를 사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바 드러냄

⑥ 해제

이 작품은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통해 과거 벼슬을 했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는 한시이다. 농

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시어를 사용하여 보리타작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농민들의 건강한 삶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공 ITek는 점에서, 조선 후기 진보적인 지식인의 생각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2) 정약용 들여다보기

<https://youtu.be/4APj6kwXge0>

(3) 조선 후기 백성의 삶 들여다보기

<https://youtu.be/fznMzM-9BL4>

(4) 다른 작품 둘러보기

蘆田少婦哭聲長 갈밭마을 젊은 아낙 길게 길게 우는 소리
 哭向縣門號穹蒼 관문 앞 달려가 통곡하다 하늘 보고 울부짖네
 夫征不復尙可有 출정 나간 지아비 돌아오지 못하는 일 있다 해도
 自古未聞男絕陽 사내가 제 양물 잘랐단 소리 들어본 적 없네
 舅喪已縞兒未澡 시아버지 삼년상 벌써 지났고 갓난아인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三代名簽在軍保 이 집 삼대 이름 군적에 모두 실렸네
 薄言往愬虎守關 억울한 하소연 하려 해도 관가 문지기는 호랑이 같고
 里正咆哮牛去早 이정은 으르렁대며 외양간 소마저 끌고 갔다네
 磨刀入房血滿席 남편이 칼 들고 들어가더니 피가 방에 흥건하네
 自恨生兒遭蹇厄 스스로 부르짖길 "아이 낳은 죄로구나!"
 蠶室淫刑豈有辜 누에 치던 방에서 고한 까는 형벌도 억울한데
 閩田去勢良亦憾 민나라 자식의 거세도 진실로 또한 슬픈 것이거늘
 生生之理天所予 자식을 낳고 사는 이치는 하늘이 준 것이요
 乾道成男坤道女 하늘의 도는 남자 되고 땅의 도는 여자 되는 것이라
 驢馬豨豕猶云悲 거세한 말과 거세한 돼지도 오히려 슬프다 할만한데
 況乃生民思繼序 하물며 백성이 후손 이을 것을 생각함에 있어서랴!
 豪家終世奏管絃 부자집들 일 년 내내 풍악 울리고 흥청망청
 粒米寸帛無所損 이네들 한 톨 쌀 한 치 베 내다바치는 일 없네
 均吾赤子何厚薄 다 같은 백성인데 이다지 불공평하다니
 客窓重誦鳩鳩篇 객창에 우두커니 앉아 시구편[3]을 거듭 읊노라
 - 정약용, 애절양

1~4구에서는 들도 보도 못한 사건인 자신의 양근을 자른 사건과 그것에 목 놓아 우는 아낙의 모습을 그렸다.

5~10구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전말인 죽은 시아버지와 갓 낳은 자식이 군적(軍籍)에 올라 있는 기막힌 현실을 고발하였다.

11~16구에서는 양근을 자른 일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를 다시 객관화시켜 따져 묻고 있다. 소나 돼지가 그런 일을 당해도 측은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일을 스스로 행한 슬픔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17~20구에서는 백성들은 세금을 건디다 못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현실에 처해 있다. 그러나 양반 부호들은 오히려 일 년 내내 풍류나 즐기면서 한 톨의 세금도 내지 않는 사회적 모순을 다시 고발하고 있다.

당시 군적에 오른 사람은 병역을 대신하여 군포(軍布)를 내게 되는데, 관리들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 이미 죽은 사람과 갓난아이의 이름을 군적에 올려 세금을 가혹하게 거둬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군포를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자신의 생식기를 자른 기막힌 현실을 두고 노래한 것이다. 조선 후기의 부패한 사회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하는 참담한 정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吏打龍山村	아전들이 용산 마을에 들이닥쳐
搜牛付官人	소를 뒤져 관리에게 넘겨주고
驅牛遠遠去	그 소몰고 멀리멀리 가는 꼴을
家家倚門看	집집마다 대문 밖에 기대어 보고만 있네
勉塞官長怒	사또님 노여움만 막으면 그만이지
誰知細民苦	약한 백성 고통을 그 누가 알아주리
六月索稻米	유월달에 쌀을 찾다니
毒痛甚征戍	고달프기 개새끼보다 더하구나
德音竟不至	좋은 소식은 끝내 오지 않고
萬命相枕死	수많은 생명 다 죽게 되었으니
窮生儘可哀	제일 불쌍한 건 가난한 백성이라
死者寧嗚矣	죽는 편은 오히려 더 낫다네
婦寡無良人	아낙들은 홀로되어 남편이 없고
翁老無兒孫	늙은이는 그 나이 되도록 자손이 없네
泫然望牛泣	끌려가는 소 바라보니 눈물이 솟고
淚落沾衣裾	그 눈물 떨어져 옷 다 적신다네
村色劇疲衰	마을 형색이 이토록 찌들어도
吏坐胡不歸	아전놈 앉아서 돌가갈 생각을 않고
瓶甕久已罄	쌀독 바닥난 지 이미 오래거니
何能有夕炊	무슨 수로 저녁밥 지을 것인가
坐令生理絕	죽치고 앉아 남 못살게 하는 놈
四隣同嗚咽	동네마다 목메어 우는 곳이라네
脯牛歸朱門	소를 잡아 권문에 바치면
才諳以甄別	거기에서 인제가 드러난다네

-정약용, 용산리

이 시는 정약용이 다산초당에 거거하셨던 1810년(경오년), 지은 시다. 전정, 군정, 환곡으로 대별되는 삼정이 극도로 문란했던 시절, 지방관아에서는 사람들이 집안에 곡식을 감춰두고 세금을 내

지 않으니 이를 찾는다면 명분으로 관리들을 시켜 이를 찾으려다 냈다. 말이 찾으려 다닌 것이지, 쌀은 물론 죽 끓일 곡식도 없는 사람들의 집에 들이닥쳐 돈 될 것을 찾는 그들의 표독스러움을 말해 무엇하랴. 지금의 도암면 용산마을에서도 이들이 들이닥쳐 밀린 세금이 많았는지 아전이 기르던 소를 끌고가버리자 이를 망연히 바라보는 동네사람들의 애달픈 마음을 그려내고 있다.

농가(農歌) - 위백규

○ 제1수

서산에 도들벗서고 구움은 느제로내다
비뿔 무근풀이 뉘밭시 짓터든고
두어라 차레지운 날이니 매난다로 매오리라
<현대어 풀이>
서산에 아침 햇별이 비치고 구움은 낮게 떠 있구나.
비가 온 뒤의 묵은 풀이 누구의 밭에 더 짙어졌는가?
아아! 차레가 정해진 일이니 묵은 풀을 매는 대로 매리라.

○ 제2수

도롱이에 흙의 걸고 빨굽은 검은쇼 몰고
고동풀 뜻머기며 깃물갓 내려갈제
어대서 품진벗심 함피가자 하난고
<현대어 풀이>
도롱이에 흙의를 걸치고 빨이 굵은 검은 쇼를 몰고
고동풀을 뜯어먹게 하며 깃물가로 내려갈 때
어디서 품진 벗심은 함께 가자 하는가

○ 제3수

둘러내자 둘러내자 길찬 골 둘러내자
바라기 역괴를 골골마다 둘러내자
쉬짓튼 긴 사래난 마조 잡아 둘러내자
<현대어 풀이>
쳐 내자 쳐 내자 꼭 찬 고랑 쳐 내자.
잡초를 고랑고랑마다 쳐 내자.
잡초 짙은(무성한) 긴 사래는 마주 잡아 쳐 내자.

논매기 하는 모습을 담은 세 번째 작품이다. '둘러내자'는 논이 김을 한 골씩 매어나가자고 서로 독려하는 내용으로 김을 맬 때 부르는 노동민요의 한 관용구이다. 여럿이 줄줄이 서서 한 골 한 골씩 논을 매고 잡초인 바라기를 골라내는 모습에서 협동성과 공동 노동의 흥겨움이 배어 있다. 계절적으로 농번기의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4수

땀은 들난대로 뚫고 뵈스 쫄대로 쫄다.
청풍에 옷깃 열고 긴 파람 홀로 불 제
어딴서 길 가는 손님 아난드시 머무는고
<현대어 풀이>
땀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햇별은 쫄 대로 쫄다.
맑은 바람에 옷깃을 열고 긴 휘파람 되는데로 불 때
어디서 길가는 손님은 마치 나를 아는 듯이 주저 없이 머무는가

오뉴월 대낮의 뜨거운 햇빛이 쏟아지는 들녘에서 허리 굽히고 김을 매다보면 땀은 비 오듯이 쏟아져 온 몸을 적신다. 땀을 닦아낼 짬도 없이 김매기에 열중하다 때마침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향해 젖은 옷깃을 열고 허리를 세워 바람을 즐기며 휘파람을 불고 있다. 이 달콤한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동안 길 가다 머물던 손님이 간섭하는 장면이 눈에 그려진다.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드시 머무는고.' 이는 사대부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으로서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화자의 기분을 알기라도 하는 듯 잠시 서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다. 즉, 땀 흘려 일하는 농부의 기분을 이해할 리 없는 양반이 마치 화자 자신의 기분을 알기라도 하는 듯이 바라보는 데 대한 은근한 빈정거림이 나타나 있다.

○ 제5수

항기에(한그릇의) 보리뵈오 사발의 콩잎이라
내 밥만 할세요 네 반찬 적을세라
먹은 뒷 한잠경이야 네오 내오 달을소나
<현대어 풀이>

밥그릇에는 보리밥이오 사발에는 콩잎채라
내 밥이 많을까 걱정이오, 네 반찬이 적을까 걱정이라
먹은 뒤에 한숨 잠을 자는 즐거움이 나와 내가 다르랴?

보리밥 한 사발과 콩잎 나물 한 그릇으로 점심을 먹는 모습을 담은 다섯 번째 작품이다. 네 밥 내 반찬 서로 뽐내지 않고 그저 한 그릇 점심으로 서로 배부르면 그만인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담겨진 작품이다. 한 그릇의 보리밥과 한 사발의 콩잎 나물이라도 왕후장상의 호화로운 밥상에 비길 것이 없다. 그 소박한 점심을 달게 먹은 뒤에 잠깐 오수를 청하는 광경이 눈에 선하다.

○ 제6수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지거다 돌아가자
계변의 발을 씻고 흙의 메고 돌아올제
어디서 우배초적(牛背草笛)이 함께 가자 뵈아난고
<현대어 풀이>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가 지겠구나 돌아가자
시냇가에서 손발을 씻고 호미 매고 돌아올 때
어딘가에서 들리는 초동의 풀피리 소리가 함께 가자 재촉하는고.

해질 무렵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풍경을 읊은 여섯 번째 작품이다. 하루의 노곤함을 시냇가에서 발을 씻으며 풀고 농기구를 챙겨 돌아오는 길에 어디선가 소치는 아이가 부는 듯한 풀피리소리가 일품이다라는 내용으로 화자인 농부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딘가에서 소의 등에 올라타고 돌아가는 이의 풀피리 소리가 들린다는 이 구절은, 농부의 삶에 깃든 소박한 풍취를 나타내고 있다.

○ 제7수

면해난 세다래 네다래요 일인번난 피난 모가 곱난가
오뉴월이 언제가고 칠월이 반이로다
아마도 하나님 너희 삼길제 날 위하여 삼기샤다

<현대어 풀이>

면화는 세 다래 네 다래로 듬뿍 피고 이른벼는 피는 이삭이 곱더라
오뉴월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가고 벌써 칠월 중순이로다
아마도 하느님이 너희(면화, 벼)를 만드실 때 바로 나를 위해 만드셨구나.

○ 제8수

아해난 낫기질 가고 집사람은 저리 처친다
새밥 익을 때에 새 술을 걸릴세라
아마도 밥 들이고 잔 자불 때에 豪興계워 하노라
<현대어 풀이>

아이는 낫시질 가고 집사람은 절이 채(걸절이 나물) 친다.
새 밥 익을 때에 새 술을 거르리라.
아마도 밥 들이고(들여오고) 잔 잡을 때 호탕한 흥에 겨워 하노라.

상신(嘗新)은 본격적인 수확에 앞서 그 해의 햇곡식을 미리 맛보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기쁨을 노래한 여덟 번째 작품이다.
아이들은 낫시질 가고 아내는 분주하기만 한데 햇곡식으로 지은 밥과 거른 술로 질편한 술자리 한 판 벌여보려는 듯 흥겹고 기꺼운 가을걷이 모습이다.

○ 제9수

취(醉)하난이 늘그니요 웃난이 아희로다
흐튼 순배 흐린 술을 고개 수겨 권할 때에
뉘라서 흥장고 긴노래로 차례춤을 미루는고
<현대어 풀이>

취하는 이는 늙은이요, 웃는 사람은 아이로다.
어지럽게 술잔을 돌려 탁주를 고개 숙여 권할 때에
흐르는 장고, 긴 노래에 누가 자기 차례의 춤을 사양하여 미루는가

농가 구장의 마지막 작품이다. 가을걷이 끝난 후 햇곡식으로 빚은 술을 마시고 서로 권작하며 노동의 보람을 만끽하는 모습을 그렸다.

■ 이해와 감상 1

농가는 전 9장으로 이뤄진 연시조로써 전형적인 농촌 생활을 일과 의 진행시간 순서에 따라 노래한 작품으로, 현실 비판적이고 부패한 시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밝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조출(朝出), 운초(耘草), 석귀(夕歸), 초추(初秋) 등 각 장의 내용을 포괄한 제목이 붙어있으며 제1수 조출(朝出)에서 제6수 석귀(夕歸)까지는 여름 농번기의 하루 일과를 읊은 것이고, 이어지는 나머지 3수 초추(初秋), 상신(嘗新), 음사(飲社)는 곡식이 익어 가는 초가을에서 추수가 끝난 후의 늦가을까지 절서감(節序感)을 읊고 있다.

■ 이해와 감상 2

농촌을 자연에 묻혀 풍류를 즐기는 공간으로 보거나 농민의 삶을 관념적으로 예찬한 사대부 계급의 일반적인 시조 작품들과 달리, 농촌을 농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보고 농민의 삶을 사실적

으로 그려 낸 작품이다. 즉, 이 작품의 화자는 농민인데, 이런 설정은 사대부의 관점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바라보고 쓴 다른 작품과 달리, 농민의 입장에서 글들의 삶을 그리려 한 작가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제 4장에는 다가온 햇볕 아래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민의 고된 노동과,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히며 잠시 여유를 즐기는 휴식이 잘 표현되어 있다.

아울러 종장에서는, 농민의 삶과 유리(遊離)되어 있으면서도 마치 그들을 일해하는 듯 행동하는 사대부들의 태도에 대한 은근한 비판도 엿보인다. 제6장에는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농민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시냇가에서 손발을 씻고 돌아가는 모습에서, 자연을 완상(玩賞)과 예찬의 대상으로만 바라봤던 사대부들의 강호가도(江湖歌道)와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으며, 소 잔등을 타고 가는 사람의 풀피리 소리는 농민의 삶에 깃든 소박한 풍취를 느끼게 한다.

2. 문학의 구성 원리와 갈래

(1) 문학의 구성 원리

■ 선운사에서 학습자료

(1) 선운사에서 핵심정리

- ① 갈래: 자유시, 서정시
- ② 성격: 서정적, 애상적, 낭만적
- ③ 제재: 꽃
- ④ 주제: 사랑의 시작과 이별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 ⑤ 표현 기법
 - 수미상관 구조
 - 직유법: 사랑의 시작을 '피어날 때처럼'에 비유
 - 대비 : 피다/지다, 잠깐/한참, 힘들다/쉽다 등의 대비를 통해 감정 부각
 - 시어 반복: '~이더군', '~없이', '그대여'의 반복은 정서적 울림을 형성

시적 장치	효과
-이더군	사실적인 진술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
-없이	아쉬움,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정서 전달
-는 그대여	정서적 여운을 남기며 운율을 부드럽게 마무리

<해제>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을, 만나서 사랑하고 헤어지고 잇는 과정으로 대비시켜, 이별한 사람을 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표현한 시이다. 이 시는 자연사를 통해 인간사의 진리를 깨닫는 내용으로 시가 전개된다. 이 시는 개화와 낙화를 인간사의 만남(사랑)과 이별로 대응시켜 쉽게 찾아온 이별 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담담하게 노래하고 있다. 이 시는 꽃이 지는 건 '잠깐'이고 꽃을 잊는 건 '한참'이라는 시간적 대비를 통해 시적 의미를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때 개화는 사랑의 상취를, 낙화는 사랑의 실패 또는 이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서 개화의 어려움과 낙화의 쉬움을 통해 이별이 사랑보다 쉽게 찾아옴을 드러내고 있다.

(2) 다른 작품 둘러보기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주제: 원시적 생명력과의 만남에 대한 희구

해제

이 시에서 '물'은 주체와 객체를 '우리'로 만나게 하는 매개체이다. 또한 '물'은 가뭄이 상징하는 현대인의 고독한 삶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라 할 수

있다. 물은 유동적이라 서로 완벽하게 하나로 섞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물로 만나 흐를 때, 비로소 힘을 가지게 되어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찌들어 사라져 버리는 것들에게 새 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물과 대비되는 속성을 가진 것이 '불'이다. 불은 물의 이미지와 대비되는 것으로, 죽음, 파멸, 파괴 등 바람직하지 않은 삶의 방향을 상징한다. 이 불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태우고 지나간 후에 새로운 창조적 만남의 공간을 상징하는 '넓고 깨끗한 하늘'에서 만나자는 말은 원시적 생명력과의 만남, 합일예의 희구를 표현한 것이다. 작가는 '우리'가 '불'이 아닌 '물'로 만날 때만이 진정 조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
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흠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주제: 복숭아나무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해제

이 시는 화자가 '복숭아나무'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복숭아나무가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편견으로 멀리서만 바라보다가, 그 나무의 눈부신 빛깔이 수천 개의 빛깔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외롭게 수많은 꽃빛을 피워내는 것에 만족하는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고 선입견에서 벗어나 교감을 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닳듯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 도종환, 「흔들리며 피는 꽃」

주제 : 시련과 역경 속에 완성되는 사랑의 삶
해제

이 시는 '-으랴', '-나니'의 구절의 반복과 1연과 2연의 대칭 구조로 울격을 획득하고 있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진 시이다. 시적 화자는 꽃이 피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다. 1연에서 꽃이 '흔들리며 핀다'는 것과 2연에서 '젖으며 핀다'는 것은 시련과 역경을 견뎌 내야 꽃이 핀다는 평범한 세상 이치를 보여 준다. 이는 단순히 꽃이 핀다는 자연의 법칙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간의 사랑과 삶의 의미를 보여주는 암시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즉 꽃이 흔들리며 피어나듯 사랑도 흔들리며 만들어지고, 꽃이 비바람에 젖으며 피어나듯 인간의 삶도 고통과 그로 인한 눈물에 젖으면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결국 시적 화자는 인간의 사랑과 삶이 시련과 고통을 견디고 완성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꽃은 탄생(발아)과 성장, 개화(開花), 낙화(落花)라는 과정 때문에 인간의 삶을 비유하는 것으로 많이 쓰인다. 이 시에서도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 가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내는 꽃의 모습을 들어 인간의 삶의 속성을 유추해 내고 있다. 즉 아름다운 인생의 결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시련과 고통, 그로 인한 슬픔의 눈물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개관정리]

◆ 성격 : 서정적, 암시적

◆ 표현

- ① 자연물을 통해 인간 삶의 본질을 암시함.
- ② 반복과 대구를 통해 주제를 강조함.
- ③ 대칭적 구조

2. 문학의 구성 원리와 갈래

(2) 문학의 갈래와 맥락

■ 향수 학습자료

(1) 향수 핵심정리

①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표현함으로써 얻는 효과

고향 마을의 정경과 그 시절의 기억을 감각적 심상을 통해 정겹게 제시하여, 고향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② 3연의 '함부로 쓴 화살'이 드러내는 함축적 의미

시적 화자의 유년기의 소박한 꿈과 동경의 세계를 암시

③ 물소리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정겹게 느껴지는 효과를 드러내는 시구

옛 이야기 지출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④ 후렴구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에 담긴 의미

- 고향을 추억하는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직접적)으로 제시하는 효과를 얻음.
- 후렴구를 경계로 하여 각 연의 시상이 매듭되어 화자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심화됨.

⑤ 여러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인 <향수>의 구성 요소

- 평온한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세계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과 미래에 대한 설레는 동경과 꿈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상상을 통해 재구성
- 모든 사람들이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고향에 대한 보편적인 이미지와 잃어버린 유토피아에 대한 꿈을 곁고 섬세한 시정과 풍부한 이미지(심상)를 통해 생생하게 환기시켜 줌

⑥ <향수>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 내재율
- 후렴구에 의한 반복률
- 각 연을 '곳'으로 끝맺음으로써 각운법(음위율)에 의한 운율적 효과와 후렴구 첫머리와 바로 이어지는 리듬감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얻음
- 제1,2,3,5연의 시행을 4행으로 배열, 전개하여 시상 전개의 안정감을 느끼게 함

(2) 다른 작품 둘러보기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에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이용악, 「그리움」

주제: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해제

이 시는 고향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으로, 해방 직후에 시인이 혼자 상경하여 서울에서 외롭게 생활하다가 함경북도 무산의 처가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1연에서 시인은 '북쪽 작은 마을'에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하고 자신에게 묻고 있으며, 2-3연에서는 언뜻 시인이 상상의 날개를 펴고 북쪽의 가족을 찾아가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그곳은 '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백무선 철길'을 이용해 '느릿느릿 밤새워 달려'야 다다른 깊은 산골이다. 지금쯤이면 그 곳으로 향하는 화물열차의 검은 지붕에도 눈이 내릴 것이며, 가족들이 사는 작은 마을에도 눈이 내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4연에서 화자는 그들이 못 견디게 그리워진다. 그러므로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이라는 시행의 '차마'라는 시어 속에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이 응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 어찌자고 잠을 깨어'라는 구절은 바로 시인이 머물고 있는 서울도 잉크병마저 얼게 할 정도로 추운데, 그 곳 무산의 가족들은 얼마나 추울까, 하는 화자의 가족들에 대한 염려가 잘 드러나 있다. 5연에는 '북쪽 마을'에 함박눈이 쏟아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1연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묻는 단순한 질문

이라면, 5연은 동일한 시행이면서도 시인의 그리움 내지 가족에 대한 사랑이 마침내 눈으로 화하여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잉크도 얼어붙게 할 정도의 추위를 몰아오는 ‘함박눈’임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그것을 ‘복된 눈’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태도이다. 해방이 되자마자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가족들을 처가에 남겨 두고 상경하였던 그로서는 ‘눈’을 새 시대를 위한 하늘의 축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
 쪽*도 짚검불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형겅 조각도 막대꼬치
 도 기왓장도 닭의 깃도 개 터럭도 타는 모닥불

재당도 초시도 문장(門長)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
 도 갓사둔*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땀쟁이도 큰 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아비 없는 서러운 아
 이로 불상하니도 몽둥발이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백석, 「모닥불」

주제: 조화와 평등의 공동체적 합일 정신
 해제
 1연에서는 모닥불을 이루는 사물들을 나열하여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모여 세상에 온기를 전하는 모닥불이 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쓸모 없는 것들은 없다 정도의 인식으로 대상에 대한 시인의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연에서는 그런 모닥불 곁에서 온기를 느끼는 사람들을 나열, 열거하고 모닥불의 온기 아래 모두가 평등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때 1연에서부터 2연까지 나열하는 것들에 모두 보조사 '도'를 사용하여 '모닥불'을 이루는 여러 가지를 보다 긴밀한 관계로 묶어줍니다. 3연에서는 지금까지 내용과 이질적인 내용으로 여운을 남기는데요. 3연에서 모닥불은 할아버지처럼 부모의 보호 없이 공동체에서 소외되어 자랐던 개인의 슬픔을 떠올리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말했던 공동체의 따뜻함과 대비되는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여운을 주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할아버지 개인의 슬픔은 민족으로 확대하면 일제강점기에 우리민족의 슬픔, 슬픈 역사도 일제강점기 우리민족의 슬픔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는 '모닥불이 주는 조화와 평등 그리고 공동체에서 소외된 개인의 슬픈 역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 윤흥길 장마 학습자료

1. 갈래: 중편 소설, 전후 소설, 성장 소설
2.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 배경: 시대적 - 6.25 전쟁 / 계절적 - 장마철
4. 특징

어린 '나'의 서술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함사투리를 사용하여 토속적이며 사실적인 성격을 드러냄이중적 시점이 드러남. (어른이 되어 회상하는 시점 + 어린 아이의 시점) 무속 신앙에 근거한 상징적 장치가 드러남한 가족의 비극을 통해 민족 분단의 문제를 다룸

5. 주제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한 가족의 비극과 민족의 보편적 정서를 통한 극복과 화해

[핵심 포인트]

1.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 ① 어른인 '나'의 시각과 어린 아이인 '나'의 시각이 교차함
- ② 어린 아이인 '나'의 시각은 이념의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으면서도 전쟁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전달함

2.갈등 해소 방식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 양상이 구렁이의 출현과 외할머니의 무속적 행동으로 해소됨

3.소재의 의미와 역할

장마	분단과 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적 사건 6.25 전쟁으로 인한 음울한 분위기 형성
장명등	자식에 대한 할머니의 모성애
장명등이 꺼진 것	삼촌의 생활이 어려울 것을 암시
할머니의 머리카락	할머니의 모성애 상징 삼촌의 한을 푸는 소재
돌명이, 돌팔매질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시련, 수난을 의미
구렁이	죽은 삼촌의 현신 희생당한 우리 민족의 모습

4.'정말 지루한 장마였다.'의 의미

- ① 배경으로 마무리하여 여운을 줌
- ② 장마 기간에 사건이 진행되었음을 알려 줌
- ③ 갈등의 극복을 암시함
- ④ 서술자가 작중의 갈등을 실제보다 길고 지루하게 느꼈음을 의미함

장마 윤희길 줄거리 내용 요약

'나'는 친할머니와 사돈댁에서 신세를 지는 처지(전쟁으로 인해 서울에서 피난온 외가의 처지)에 있는 외할머니가 계신데, 이 두 분은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던 어느 날 밤, 외할머니는 국군 소위로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전사하였다는 통지를 받는다. 이 후부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외할머니는 빨갱이는 다 죽어라고 저주를 하였고,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친할머니가 이 소리를 듣고 노발대발 한다. 그것은 곧 빨치산에 나가 있는 자기 아들더러 죽으라는 저주와 같았기 때문이다. 나(동만) 역시 어떤 사람의 꼬임에 빠져 삼촌이 집에 왔었다는 말을 해서 아버지가 지서에 끌려가 한동안 고생하게 했던 사건을 저질러 할머니의 분노를 산 상태였다.

빨치산 대부분이 소탕되고 있는 때라서 가족들은 대부분 할머니의 아들, 곧 삼촌이 죽을 것이라고 믿지만, 할머니는 '아무 날 아무 시'에 아무 탈없이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예언을 근거로 아들의 생환을 굳게 믿고 아들을 맞을 준비를 한다. 그 날이 가까워지면서 우리 집은 장마통에도 할머니의 성화 때문에 대단히 바빴다.

그러나 예언한 날이 되어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실의에 빠져 있는 할머니. 그 때 난데없이 구렁이 한 마리가 애들의 돌팔매에 쫓기어 집안으로 들어온다. 이를 본 할머니는 불안간 졸도하게 되고, 집안은 온통 쑥대밭이 되는데, 외할머니는 아이들과 외부인들을 쫓아 버리고 감나무에 올라앉은 구렁이에게 다가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할머니 머리에서 빠진 머리카락을 불에 그을린다. 그 냄새에 구렁이는 땅으로 내려와 대밭으로 사라져 간다.

그 후 할머니는 외할머니와 화해하게 되고 일주일 후 숨을 거둔다. 그리고 장마가 걷힌다.

▣ 봉산탈춤 학습 자료

[핵심 정리]

1. 갈래: 가면극, 탈춤, 민속극
2. 성격: 풍자적, 해학적, 서민적, 비판적
3. 구성: 전 7과장의 옴니버스식 구성
4. 배경: 조선 후기, 황해도 봉산
5. 주제: 양반에 대한 풍자와 조롱
6. 특징:
 - 일정한 재담 구조가 반복되면서 내용이 전개됨
 - 각 과장이 독립적으로 구성됨
 - 서민 계층의 언어와 양반 계층의 언어가 섞여 있음 (언어의 이중성)
 - 언어유희, 열거, 과장, 희화화 등을 통해 양반을 풍자하고 비판함
 -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어 시간과 공간의 이동이 자유로움
 - 등장인물의 겉모습을 통해서 신분이나 성격을 표현함
 - 배우와 관객 또는 악공과의 소통이 자유로움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음)
7. 전체 구성:
 - 제1과장: 사방신에게 배려하는 의식무
 - 제2과장: 팔먹중의 파계와 범고놀이 장면
 - 제3과장: 사당과 거사들이 흥겹게 노닐.
 - 제4과장: 노장이 유혹에 넘어가 파계했다가 취발이에게 욕을 봄.
 - 제5과장: 사자가 파계승을 혼내고 화해의 춤을 춤.
 - 제6과장: 양반의 허세를 희화화하고 풍자함.
 - 제7과장: 영감과 미얄, 첩의 삼각관계와 미얄의 죽음
8. 해제

이 작품은 한양과 의주를 잇는 남북 직로 상의 교통 요지였던 황해도의 봉산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황해도 일대에서 성행한 민속극이다. 일반 가면극처럼 춤이 주가 되고, 몸짓, 동작, 재담, 노래 등이 따른다. 음악은 피리, 대금, 해금, 장구, 북으로 구성된 삼현 육각이 연주한다. 전체가 7마당 5거리로 구성되었으며, 각 과장이 옴니버스식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인 성격을 띤다.
9. 재담 구조와 반복 효과:

'양반의 위엄 → 말뚝이의 조롱 → 양반의 호령 → 말뚝이의 변명 → 양반의 안심'의 구조가 반복됨